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滿洲朝鮮人의困境

一

滿洲朝鮮人의問題는 朝鮮人된者의一大問題일뿐아니라 極東戰國의 當路者들의 考慮를要하는一問題이오 事竟은더욱今後의國際問題化하고말을일이니 吾人이거듭하야이를論評코저하는理由의잇는바이다 南北滿洲에 散布하여잇는朝鮮人同胞의數는 漠然하야그實數를알가어렵거니와 朝鮮統治當局의調查한바로는 東三省에住居하는者約七十萬人이라하니 …

五

滿洲의僑居同胞가 다시西伯利亞로轉住하는者잇고 內國의飢饉群은또한東西南北으로부터北滿에 移住하야그칠줄을모르 …

北京陷落在邇

反國軍의一般戰況과 中國側의觀測

（奉天九月發）八日부터總攻擊을開始한反國軍張宗昌李景林軍은協力하야南苑을占領하는同時에天津을衝코저하는中인바山西軍 …

奉國兩軍漸接近

國軍은防備에努力

畢司令의出動은

土匪를討伐함에不過

日領舘投彈事件

一問題가惹起될듯

法權實地調查員

廣東方面에發向

狙擊犯의自白과

軍醫의陳述은全然反對

伊首相遭難事件後報

現下政局과研究會

今後는本黨內閣에囑意

態度漸次變調

陸軍巨頭會議

機密費事件協議

京南鐵道驪州線

安城市中心을衝潰

政友會廓淸派

八日에會合

元電値下交涉

報告會決議

全州牛市移轉

所謂安城避病舍

惡臭가觸鼻하는

家欄마못한濕坑에 患者를不計코收容

保健宣傳講演

無料巡診과

暴行日醫에게

警告發送決議

江景少年會

婦人團도組織

五賢遺址요 氷溪寺舊基인

獎學會新組織

金泉「衡平雜誌」

來五月末創刊

淳昌登記所에

對한不平區區

公普期成

夜學維持方針討決

新花幼園開學

農聯은鏡城에

蔚山에 農校設立

五月부터開校

地方經濟

三月浦項經濟

不當한叱學

懸賞發表

寸鐵

社告

慶山青年春季大運動會

高陽記者團創立大會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aturday, Apr. 10th, 1926.

WHY I WENT ON THE STAGE

By Sir John Martin Harvey

V

This appearance showed no signs of latent talent, for it ended in a terrible disaster. Various light refreshments had been provided for the guests, including light sherry and biscuits, and I was to carry round a tray. I betrayed the trust. Taking advantage of my stewardship, I treated myself on the quiet and so failed to keep faith with my audience for the only time in my life. I took more sherry than was good for me, and the Princess could not carry her overgenerous share like a gentleman, and so any gleams of dormant genius failed to reveal themselves through my juvenile depravity.

My choosing the stage as a profession came about quite naturally after all. My father and I went to see Gilbert and Sullivan's H. M. S. Pinafore at the Opera-Comique played by a company of children. Traveling home we talked freely about the performance, and I suppose it was the keen interest I displayed that impelled him to ask me whether I should like stage work.

When I assented, much to my surprise he took me seriously, and, although it must have been a bitter disappointment that I would not follow in his footsteps, the thorough way he started to assist the new venture was splendid.

英文欄

余의俳優生活（헐비）（五）

惶悚中지난患候經過와 九日午後의御容態

원긔가대우쇠약하오시와증세가두어시간 만큼씩왕래되야뵈옵기에매우우려된다

창덕궁뎐하 환후경과에 대하야 구일오후팔시경에 사후하고나온 모종친은 삼가말하여가로되 뎐하께오서는 오래동안 환후중에 게시던바 지난사월오일에 랑케는밧구어 삼부(蔘附)를 진어하오신후 호흡과열도가 항진되시와 매우위중하신 형편이엇슴으로 한방의랑케를뎡지하고 완화제약을 진어하시도록하고 양의(醫師團)의 주사를 노케한후로 증세는 저윽히 침정되시와 이래랑케는 일체양약을 들이기로 근시들도 다소안심중에지낫스나 지난 칠일오후에 다량의대변을배설하신후 일시원긔가 탈진되시와 한시간이상이나 혼수상태에 들엇슴으로 일시황송중에지낫스며 종친구신들도 일시에 사후한일이 잇섯슴니다 그러나 뎐행으로도 두어시간후에 다시그 원긔가큰증세에 회복되시와 우금중대한 변동이업시 나려오시는중임니다

紅蕪清羹을 조금진어하실뿐

다만 황송하온것은 수월이래로 영양물(營養物)이라고는 당근탕에 꼭장수를조화하야 약간진어하시는이외에 아모것도 진어하시는것이업슴으로 이제는뵈옵기에 원긔가매우쇠약하신듯하오며 또증세는 대략두어시간씩사이를두고 가감이잇슴으로 일시소강(小康)상태에 게시다할지라도 도모지안심을 할수업는일이외다

未成年者는酬酒를不許할事等外의十餘件의注意事項(광주)

本人모르는 營業取消許可

주목할이문데

광주군중대면(中大面)내에 잇는일본인들이 주조회사(酒造會社)를조직한후 도군당국에서는 조선인주류제조업자들을 강제로 취소식힌다함은 이미본지에 보도한바어니와 요사이또중대면 송파리 주류제조업자(中大面松坡里酒類製造業者)김홍옥(金弘玉)에게 취소장이왓다는데 그취소장에쓴 내용을보건대 지난삼월이십륙일에 김홍옥이가 취소신청함에 의하야 취소를 허가함이라 하엿슴으로 김홍옥이는 취소신청을 한일이업는데 별안간 군으로부터 취소장이왓슴으로 즉시면당국자(面當局者)에게 물은즉 면당국자는 대답하기를 면에서도 군으로부터 그것을 보고엇지 하야그와가티 취소를하얏는지 전혀모르는일이니 알어보겟다고 함으로 김홍옥이는 말하기를 나는취소신청을한일이 업스니까 바들수업다고 취소장을 면사무소에두고왓다는데 장차이문데가 엇지나…

六歲小女가 自働車에치어

衡平社員反目 善山市民과

死亡者와同貌奇貨로 遺産橫領奇計

죽은사람의가명에들어가 아들노릇하다가잡히게돼 探偵小說가튼事實

…期)를 마치고 작년십이월에 형무소를 버서나온 일본추뎐현 선북(秋田縣仙北)출생인 일본인 세천희일(細川喜一)(三七)은 북해도(北海道)에서 자긔와 친히지내는 진시 축디뎡(津市築地町) 평뎐궁(平田宮)이 징병(徵兵)을 긔피하고 북해도에 다라나서 지난대정십년에 객사(客死)하엿는데 전긔세천은 평뎐궁의 얼골과 모든것이 갓고 또평뎐의 집안사정을 잘아는것을 긔화로 그집재산을 횡령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오일에 돌연 고향을떠나 잇섯슴으로 최근에는 고향이그리워 못견듸겟다하면서 전긔평뎐궁의 고향에이르러 평뎐의 행동을 하면서 부모형뎨에게 대하야 십오년간 불효한 태도를 사죄하고 지금자긔는 동경에 치산까지하여두엇다는것을 말하면서 잇슬동안에 진서(津署)에서는 징병을 긔피하엿다는것으로 인치하야 취됴하엿든바 과연 긔모든사실이 발각되엿다더라(진)

安岳紅疫險惡

소아사망이다수

强盜犯行二百件

몸서리처지는국강도단장 死刑囚로收監中自殺

改名하는柤峴驛

上仁川이라命名할터 오는이십오일부터

◇九日午後發表

元山의變候

伺候制限의理由

稻田博士의退京理由는

光州各團體에

木浦海産物商組合의 十餘年搾取内幕暴露

암호를써서입찰의한도를뎡하야가지고 무리한리익을자긔들세리분배하얏다고 抗議의結果組合理事長은謝過

전남목포(全南木浦)는 해륙산물(海陸産物)이 만히 집산하는 도회디로 호남(湖南)에 유명한 일대항구인바 그중에 특산물도는 전라각도서(島嶼)에서 생산하여가지고 목포시장에와서 매매하는 곤포와 포련초(眞布、布天草)등의 물품으로만 매년매매액수(額數)가 수백만원이상에 달하는바 따라서 자본주(資本主)인 일본인 상업자들은 왼갓수단을다하야 일반생산자와 중매업자는 조선사람의 장려와 물품개량과 매매상편을 무수히 롱락하여오다가 해산물을 도모키위한다는 목덕아래에서 지금으로부터 **십이년전** 즉대뎡삼년도에 무역상(貿易商)일본인들과 중매업자 조선인들을 망라하야 목포해조조합(海藻組合)을 조직하엿스나 매수자(買收者)는 일본인만이엇는바 매수권을 차지한 일본인들은 자긔의 욕심대로 생산자로하야금 잡초(雜草)를 가리는등 물이나도록 간조(乾燥)를 극심히하고 도물건당은 가마니(叺)근수를 한개에 다섯근토록케하여 밧는등 별별수단을하야 무리한 폭리(暴利)를 취하야 오다가 지난대정십이년사월부로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에 의하야 해산물생산자와 밋중매업자와 무역자들을 망라하야 **젼라남도** 수산회(水産會)가되엿는데 수산회회장(會長)은 젼라남도내무부장 송뎡방치(內務部長松井房治)요 부회장은 목포에서 해산물무역상거두(巨頭)이 석삼경치(石森敬治)엿섯다 그와동시에 목포해조조합은 해톄(解體)하고 지난대정십삼년륙월일일에 해톄된 해조조합과가튼 취지로서 다시 목포해산물산조합(木浦海産物産組合)을 창립함에 조합원은 조선인중매업자 리윤원(李潤源)김봉신(金泰信)외에 십팔인이요 일본인으로 해산물무역상 석삼경치(石森敬治)삼수정(森酒井)호자직칠(呼子直七)아부(阿部)중상(中上)산래평조(山内平助) **식산회사**(殖産會社)…

綻露된龍岡郡當局의罔民

군용디소작료를착취하려다가 비밀이드러나당국은창황실색

◇激憤된郡民은郡廳을魔窟視!

…(拂下)까지되여 다소주민들의 감정이완화됨을 보게하더니 작년도에는 다시 항공실습디(航空實習地)란 명목으로 주민들이 기간데방(堤防)을 수축하노라고 **수천원의** 금전을들인것은 문데도아니하고 임의로 불하계약(拂下契約)을 취소하야 주민의 생활디반(生活地盤)에 처지안는 동요를주엇스며 금년에와서는 작년그토디가 일본륙군성(陸軍省)의 소유로 변경될때에 룡강온정리(溫井里)지승려관(只勝旅館)에서 권긔서화면과 해운면에잇는 **잡종디의** 연고권자(緣故權者)이뻑여인의대표 김태응(金泰應)김창윤(金昌潤)채호석(蔡虎錫)세사람에게 권긔토디에대하야

一、小作權은全部從來의緣故者에게許與할事

一、小作料는兩面을合하야過剩二百圓以內로할事

一、小作期限은陸軍大臣의認可手續關係上爲先五個年으로할事

이상과가티 언명(言明)한바가잇슴에도 불구하고 뜻밧게 룡강군텽(龍岡郡廳)에서는 어주(御廚)란 일인군속과 박동훈(朴東勳)이란 군속두사람을 서화면과 해운면두사무소에 파견하야 면소의 조력을 빌어가지고 관계면민들을 초개만치도 아니보고 련일호출할뿐아니라 면민을 불러세우고는 『소작권도엇지못하고 엇지하야 군용디에 잡초(雜草)를 임의대로 수확하느냐』하며 호령할뿐아니라 『그것은절도죄에 해당하다』거나 『또는사긔횡령죄에 해당하다』거나하고 인민을 위협한뒤에는 매백평에 십일전사리(十一錢四厘)의 비례로 해운면(海雲面)에는 일천이백원 서화면(瑞和面)에는 일천여원 합계삼천여원을 군용디소작인으로부터 강제징수(徵收)하려고 함으로 소작인측에서는 군에서하는일이 너무나 애매할뿐아니라 작년에 원산(遠山)경리부장(經理部長)의 이백원설과 너무나 틀림으로 **소작인들**은 동군해운면 연봉리(延鳳里)김관수(金觀洙)씨를 대표로 경성(京城)에 파송하야 원산(遠山)경리부장을 차저보고 질문한 결과 해운면장 한희청(韓熙淸)은 해운면소작인 칠십칠인의 대표로 서화면장 송태묵(宋泰默)을 서화면소작인 륙십삼인의 대표로하고

一、小作料海雲面은四十二圓瑞和面은五十八圓合計一百圓으로할事(每百坪에四厘例)

一、小作期限은五個年으로할事

一、爆擊隊實習時는住民으로演習에妨害됨이업게할事

一、其他一條

이상과가튼 소작계약이 톄결된줄을 비로소 원산경리부장으로부터 알게되엿다는데 소작인들은 권긔 김대표의 도라옴을따라 사실의 진상을 알고 만만히 군당국의 흉계에 **넘지아니**할뿐아니라 소작인들의 등을때여 먹으라는 군당국은 도저히 미들수가업다고하야 소작인조합에서 직접으로 소작료를 백원을 지난이월이십륙일에 룡군경리부장에게 부첫다는데 백성을 어리석은 것으로만보고 소작료를 중간에서 착취해보랴고 가진 술책을 다하고잇든 룡강군당국에서는 일이크게 랑패한줄을 깨닷고 창황히 실색되여 다시는 **아모말도** 못하고 오직 군텽속에서만 무슨일을 비밀리에서 꾀하고잇슬 뿐이라는데 관계자 아백여호에서는 룡군이오 이사실을아는 룡강군민들은 군당국을 마굴과가티 미워하며 비난한다더라(진남포)

大邱에强盜出現

상뎜주인안해를따리고 수제금고를훔처갓다고

지나간 륙일오후한시경에 대구부동성뎡(大邱府東城町)이뎡목 망월본뎜(望月本店)에는 엇던자한명이 드러와서 이런쇄리 수입인지판장을 사려함으로 주인이 가지러드러가틈을타서 수제금고(手提金庫)한개를 훔치다가 그주인의안해에게 들킨바되야 여러가지로 설왕설래를하다가 그주인의 안해를 무수란타하고 금고는빼서서 그대로도망하얏다는데 범인은 아즉데포치못하얏다더라(대구)

橫暴한豐島里區長

무죄한량민들을 부당자라고축출

부천(富川)군대부면(大阜面)풍도(豐島)에서 선부(船夫)의생활을하는 김성칠(金成七)이라는사람은 늦도구장 김창준(金昌俊)과 그외의 오경환(吳景煥)을 걸어서 협박의죄명으로 지나간구일 인천경찰서에 고소를 데출하엿다는데 그자세한말을 듯건대 권긔오경환은 대정십삼년 어느때에 강간(强姦)죄로 인천경찰서에서 취됴를 받을때에 김성칠의 실형(實兄) 김성희(金成禧)가 그사건의 증인심문을 당한일이잇섯는데 오경환은 그때이십여일구류를 당하고 나온후 항상김성희에게 불평을 품고오든바 작년 음십이월경에 권긔풍도구장 김창준과 결탁을 하야가지고 김성칠외수명에대하야 부당자를 취데한다는 명목하에서 그곳의 방축(放逐)명령을 할뿐아니라 일면그곳인민에게대하야 김성칠에게는 물품거래도 하지못하게하고 또교제도 못하도록 말을한까닭에 그세력에 눌린그곳인민은 과연 물품거래와 교제를 단절함으로 이에분개한 김성칠은 고소를 제출한것이라더라(인천)

文書僞造書記

손해는오백원가량 범인은방금수색중

평남강서군 증산면락생리 김치만(平南江西郡甑山面樂生里金致萬)은 지난음력십오일 동군동진면 신교리 리원희(同郡東津面新橋里李元熙)에게서 모조삼십석(毛租三十石)과 벼이십석(日川租二十石)을 지난음십삼월부로써 팔앗다는바 매매계약서(賣買契約書)를 위조하야가지고 평양부남문통 곡물무역상 뎡성희(平壤府南門通穀物貿易商鄭聖熙)에게와서 그계약서를 내여뵈이면서 지금내가 증산(甑山)잇는 리원희(李元熙)의벼 오십석을 계약하고 오십원은 계약금으로 먼저주엇는데 지금그벼갑이 부족되니 오백원만 돌려달라한즉 전긔뎡성희는 이사람이 내상뎜에 지난겨울동안 류하면서 거지안튼거래도 햇슬뿐만아니라 과연리원희의 벼가그곳에잇는것을 분명히 아는터임으로 추호의심하지안코 즉석에서 돈오백원을 내여주면서 물건을 속히보내라한즉 전긔김치만이는 곳보낸다하더니 몃칠기다려도 아모소식이업슴으로 그때에야 비로소 속은줄알고 사방으로 수색하나 날이갈사록 아조종적을 알수업슴으로 방금각경찰서에 수색원을 데출하엿다더라(강서)

再從叔墳墓發掘後 屍首를버혀隱匿

원인은돈아니쥰다고 오년전죄악이금일에발각

충북청주군 북이면 부연리사는 김창섭(忠北淸州郡北二面釜淵里金昌燮)(三二)이란자는 대정십일년이월경에 자긔칠촌숙되는 김모의분묘를 파내여서 해골을 훔처다가 엇던곳에 몰래감추워둔일이 잇섯다는데 그사실을 지낸오늘날에 이르러 돌연히 그사실이 발각되여서 방금청주경찰서에 구금되여 엄중한 취조를 밧는중이라는데 그사실을 대강 듯건대 김창섭은 본래부터 불량한자일뿐아니라 생활이 궁핍함으로 자긔팔촌되는 김시종에게 돈량이나 취대하여달라고 수차청구하엿스되 수차치아니하엿더니 김창섭은 지난대정십일년이월경에 그와가티 김시종부친의 분묘를 파내여서 그두골을 갓다가 어느곳에 감추워두고 돈량이나 울거먹으랴하엿건만 뜻을니루지못하고 상금까지 숨기어두엇던것인바 금년삼월이십사일경에 돌연히 그사실이 발각되엿슴으로 이사실을드른 경찰서에서는 즉시 김창섭을 데포하야 취조한결과 김창섭은 사실을 일일히 자백하엿슴으로 불일간 일건서류와가티 검사국으로 넘길터이라더라(청주)

元山署大活動

탈옥범인잡고자

지난팔일아츰부터 원산경찰서(元山署)에서는 돌연히 긴장미를띄고 형사일대를 사방에 놀려다 무슨일인지 장시간을 구수응의하고나서는 곳정오에 원산역발렬차로 원뎐(原田)사법계주임은 형사일대와가티 문천군문평(文川郡文坪)방면으로 급행하엿다는데 그내용에대하야는 극비밀에 부치나 탐문한바에의하면 목하탈옥도주범 엄태섭(嚴泰燮)일당이 문천방면에 출몰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그와가티 활동한것이라더라(원산)

日娼女逃走

안악읍고옥의집에서

안악읍(安岳邑)일본료리점 고옥(高屋)에잇는 창녀 야간스노(野間すの)(二三)라는녀자는 지난륙칠일에 어듸로 종적을 감추엇는데 칠일에야 비로소 도주한줄을알고 사방으로 수색중이라더라(안악)

平壤强盜潛入

경성으로도망해왓다고 本町署非常活動

평양(平壤)경찰서에서는 지난삼일에 평양부내모뎡(某町)에서 잡화상하는 김의상(金義相)의집을 습격하야 주인을 겁박하고 금품을 강탈도주한 강도사건의 범인은 그후 오리무중에 잇게되야 범인의 종적을 백방으로 수색한결과 범인은 뎐모(田某)(二三)로 경성에온 형뎍이잇슴으로 동서에서는 즉시 시내본뎡(本町)경찰서에 범인데포를 의뢰하얏슴으로 본뎡서에서는 방금대활동중이라더라

醉巡査의暴行

량민을까닭업시구타

지난삼십일일오후팔시경에 무극경찰관주재소(無極警察官駐在所)에 근무하는 순사 천천랑、천금천정(川井)은 음성군금왕면사창리(陰城郡金旺面社倉里) 민세식과가티 술이대취하야 동군생극면병암리(同郡笙極面屛岩里) 압길을지나 뎐중뻐마솔동리사는 리용철(李容喆)(三六)이가 길옆헤서 쉬어잇든바 그를본 순사는 무엇하는사람이냐고 부르매 리용철은 농사하는사람이라 대답하엿더니 권긔천정순사는 누구는 농사하는사람이 아니냐고 무리히구타하야 원눈에서 피가쏘다지고 하금부(下腹部)가 상하야 약십이일간 치료할상처를 내엿슴으로 피해자리용철은 상해죄(傷害罪)로 고소코자 장호원안제의원(安齊醫院)에서 진단서를 내여갓다는데 일반은 천정에대하야 비난이만타더라(장호원)

新春音樂講演大會

時日 四月十日(土)午後七時半

所 西大門外阿峴敎會堂

主催 志友青年會

後援 新人同盟、孔德、西江、新孔、錦町、光活青年會、時代、朝鮮、東亞支局

警察署留置場 遊興막하다

어십삼세의청년이

지난칠일오후 십일시경에 평양(平壤)숫상거리 중국료리집 동승루(東昇樓)안에는 나히이십삼세가량의 조선청년 한명이 중국사람의손에 붓잡히여 힐난을밧고잇섯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권긔청년은 본시평남대동군 재경리면천서리(大同郡面川西里) 삼백륙십일번디에사는 리관호(李官鎬)(二三)라는청년인데 엄마전에 부모의눈을속여 자긔가거주하는 가옥(家屋)을 오십원에팔어가지고 평양에들어와서 료리집과 기생집에서 술갑과 국수갑 과자갑으로도

모다허비 한후지난이월이십일날 오후구시부터는 권긔동승루(東昇樓)에서 양산홍(楊山紅)정월선(鄭月仙)이란두기생을 불러노코 놀며 익일(翌日)오전 열두시까지 놀다가 그것만으로는 유쾌치 못하다고 권긔 두기생을 자동차에싯고 평양성(城)을 일주하고 모란봉과 긔림송중(箕林松中)을 한바퀴돌아서 이뻐리나되는 원거리 진남포항구까지 려행한후에

돌아와서 세음을보앗는데 료리갑이십오원 기생화대가이십삼원 자동차갑이 사십오원인데 수중에는 돈이한푼도업슴으로 주지못하고 료리집주인에게 욕을 당하고잇다가 별로계교는 나지안코 돈은마련할수가업스니가 최후로수단을 내여서 료리갑을 집에가서 지불하겟다하며 주인을다리고 그이튼날오후한시에 떠나는북행차를 타고자 정거장을 지나면서 긔차가 긔천히가는 긔회를리용하야 차중에서 떠러저도망하엿다가 지난칠일에 또다시평양에들어와서

대동문안 리문리에잇는 태원루(泰源樓)라는 중국료리집에서 술을먹고놀다가 돌아가는길에 권긔동승루의 인력거부(人力車夫)로잇는 안창주(安昌柱)에게 발견되야 권긔와가티 료리집주인의 손에 힐난을당하고 평양경찰서에 고발하야 인치되얏다더라(평양)

同情도不可 학생단데로

사회단데동정은못한다

긔보=개성형평청년회야학부(開城衡平靑年會夜學部)의 부흥을위하야 만일의 도움이라도주고자 개성청년회(開城靑年會)에서 회원일동이 총출하야 동정연극을 흥행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와 갓거니와 동연극흥행은 예뎡대로 륙일오후팔시에 개성좌(開城座)에서 개회코자하얏든바 별안간 흥행시간이 림박한때를 당하야 개성서에서는 중지를명하얏다는데 중지식힌리유는 무엇이냐하면 학생단데인데 학생단데로써 사회단데를 동정하는것은 어느의미로보든지 조치못하기에 중지를식히는것이라고 언명함으로 하는수업시 연극흥행을 중지하고말엇다더라(개성)

水道料金橫領

인치취됴중이다

광주(光州)면사무소에서는 몃칠을두고 구수회의를 계속하더니 당디경찰서로부터 돌연히 동면수도계(水道係)에 근무하는 최석래(崔錫來)를 인치하는동시에 사건을 절대비밀에 부치고 엄중히취됴중인데 들은바에의하면 권긔최석래는 본적을 충청관수동(觀水洞)에두고 삼년전부터 광주수도계에 근무하여오든바 작년십월부터 수도료금을 내지안는사람들에게 독촉하라는 부탁을바든것을 긔화로하야 모든 권리를다가지고 가진악행을다부리며 삼십삼원의 월급(月給)을밧는자로서 별안간 천원돈을두고 화류계로 출몰하며 돈을 물쓰듯함으로 그뒤를 비밀리에 됴사하야본결과 부정사실이 폭로되얏다는데 지금까지 조사한액수가 이천일백삼십여원이라하며 아즉도 여죄가잇는모양이라더라(광주)

治道場에서

면서긔와구장이격투

경기도안성군이죽면죽산시(京畿道安城郡二竹面竹山市)에서 충북진천군만승면광혜원시(忠北鎭川郡萬升面廣惠院市)로 교통되는 삼능도변거리 고개미테서 지난사일에 면서긔는 구장과 격투가되고 출역한 동인부는 인부에게 격투가 일어나 일대활극을 연출하얏다는데 이제그 상문한바에의하면 이죽면소에서는 동진천가도를 각동리에 멧녕보식 구역을 부닥식혀 사리(砂利)를 부설하는데 각동리인부들이 출역하야 자긔동리구역을 지정하야주기를 기다려도 담임서긔 엄창순은 오지아니하니 갈수가 농무(農務)가 급한때임으로 동면룡설리(龍舌里)인부들은 년례(年例)로 닥드든구역에 사리를 펴다가 부닷는데 추후에 임창순이가와서보고 이곳은 당목리(唐木里)분담구역이 되엿다고 괴왕사리까지 펴다부은것도 불구하고 구역을밧고와하다고 함으로 그와가티 격투가 되엿다고 이라더라(죽산)

各團體消息

◇尙洞敎會傳道第七日 십일오후일곱시반부터 부내남대문안 상동례배당에서 아래와가튼 연데와 연사로 전도

무서워말다 李益模

휘파람

▲충주군주덕면삼청리 산다는 김모라는 당년륙십세가량된자는 방금충주읍내부근으로 배회하며 손으로 병자의 전신을 주물느면 백병통치라고하는데 ▲그중 맹랑한말이 잇다 무자한부녀와 전신을 주물러서 생산케한다는 말에 무자한 부녀가 만히속는 모양이라고 ▲아모리 속기는자도 고약하지마는 속는자도 딱한일이다